

“뉴노멀 아닌 오리지널 노멀로 주께로 돌아가자”

LA 베이직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



LA 베이직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4월 7일(일) 오후 4시에 코크란에비뉴침례교회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LA 베이직교회(이선기 목사)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7일(주일) 오후 4시에 LA 코크란 에비뉴 침례교회(Cochran Ave Baptist Church)에서 열렸다.

코크란에비뉴침례교회의 찬양단이 활기찬 찬양으로 창립을 축하하는 가운데 손기호 장로(LA 베이직교회 목회위원장)가 환영의 말을 전했다.

“LA베이직교회의 4개월 동안의 짧은 여정을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귀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 말로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윌셔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일주일 만에 예배 장소를 구하고 12월 첫 주일에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렸다. 날씨가 좋았던 한 달 동안은 야외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비가 올 시점에는 시니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또한 120년의 역사를 지닌 LA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일곱 번 이상 예배 장소를 옮기면서 신앙을 지켜오

신 성도님들께서 올해 1월부터 저희와 함께 LA베이직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어서 신병옥 목사(미라클 LA)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 R828”(롬 8:28-31)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되어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사탄도 짚잡 못 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 R8282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팬데믹 시절에 자주 눈에 띄었던 단어는 뉴노멀이었는데 이런 시대에 오리지널 노멀을 기억해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 전쟁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데에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신호를 주시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께서 엘에이 베이직교회를 부르신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베이직이 이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Keith Boyette(GMC 교단 대표), 고한승 목사(한미연회 임시의장), Charles Johnson(CABCLA)의 축사도 진행됐다.

이 교회는 LA연합감리교회와 윌셔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동성애 옹호 방침에 대한 반대사를 표명하며 지난해 12월 31일 교단과 결별하고,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이선기 목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척한 교회이다.

야외 예배나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3월 3일부터 Cochran Baptist Church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이선기 목사는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왔으며, 광림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에서는 오

인권 운동가 100여명, 미 상원에 종교자유 기본권 지정 촉구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니카라과, 이란, 러시아 등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언급



©Unsplash / Joshua Sukoff

100명 이상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종교 자유 옹호자와 단체들이 미국 의회에 종교적 자유를 기본 권리로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크리스 쿤스 연방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초당적 상원 결의안 569호(S. RES. 569)는 종교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에 통합하고, 전 세계의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은 이 서한에 서명한 ‘국제종교자유 원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 산하 113개의 종교 자유 옹호자 및 단체 중 하나이다.

서한은 “결의안에 기술된 대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 학살과 집단 만행부터 신앙과 신념으로 인해 투옥되고 추방된 개인들, 종교 모임과 관행에 대한 부당한 제한, 종교 장소 파괴에 이르기까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중대한 기본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불안정과 불안, 경제 발전의 쇠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의된 상원 결의안 569호는 종교의 자유를 핵심 인권이자, 미국 외교 정책의 초석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결의안은 특히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니카라과, 이란, 러시아 등의 종교 자유 침해를 언급하고 있다. 결의안은 나이지리아에서 “형법과 샤리아 법전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을 정부가 집행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종교 정체성을 표현한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 및 투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폭력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 기독교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작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플라토 주에서 발생한 공격을 포함해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학살당했다.

지난 3월에는 이슬람 무장세력 이 카두나 주의 한 학교를 공격하여 최소 287명의 학생을 납치했다. 이는 일주일 만에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납치 사건으로, 이 지역의 안보 위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의안은 또한 인도에서 국가, 주 및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종교적 차별 정책’을 비판했는데, 이는 “종교 개종, 종교 간 관계, 하급 작용 및 소도살”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들은 이슬람교도, 기독교인, 시크교도, 달리트, 아디바시의 생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유진 기자

거스타감리교회, 엘몬트제일연합교회 주소: 1304 S. Cochran Ave. LA, CA 90019
 감리교회에서 사역한 바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전화: 213-255-0521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광가성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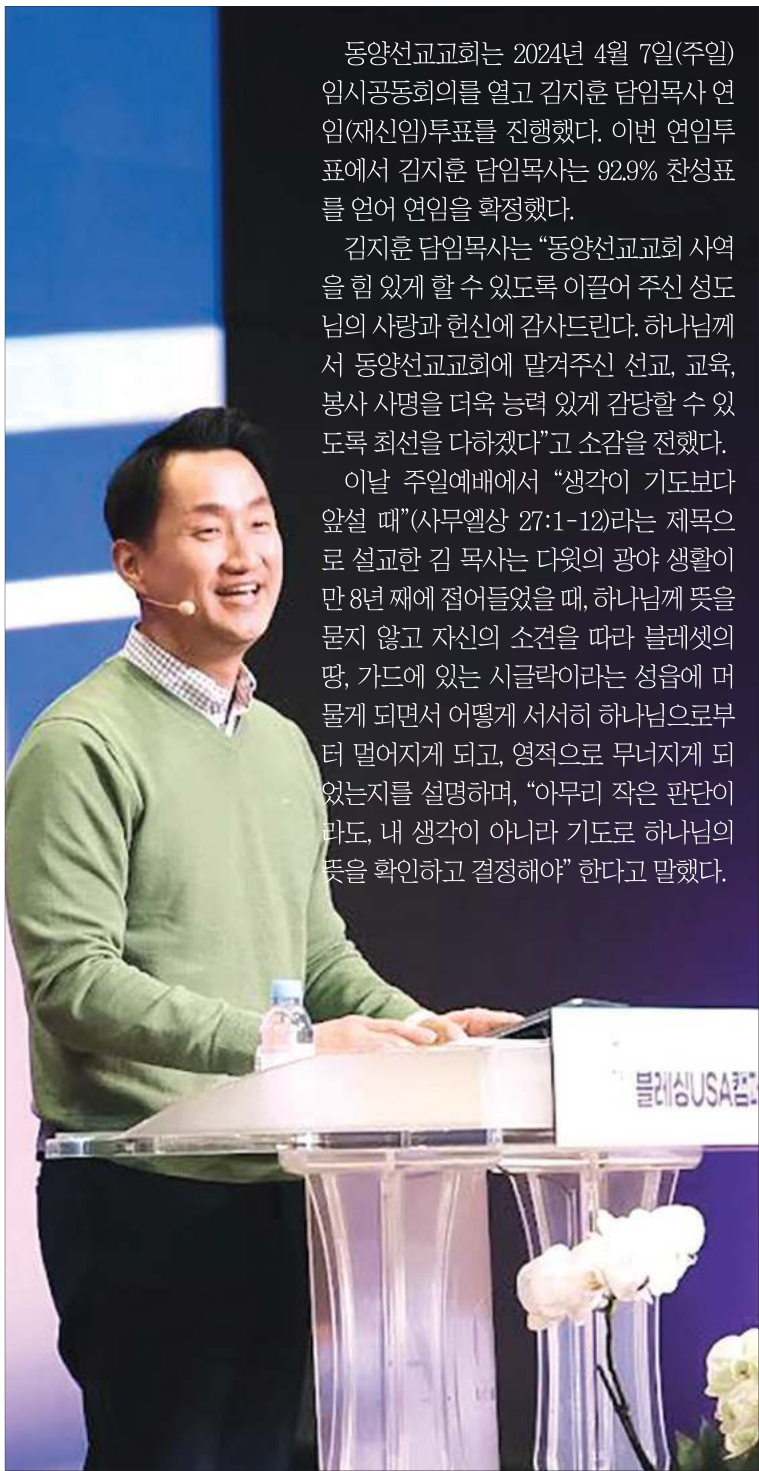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폴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에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고위임의이교문 변호사
 (전)제미발행가협외교문 변호사
 (전)증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 연임 확정



동양선교교회는 2024년 4월 7일(주일) 임시공동회의를 열고 김지훈 담임목사 연임(재선임)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임투표에서 김지훈 담임목사는 92.9% 찬성표를 얻어 연임을 확정했다.

김지훈 담임목사는 “동양선교교회 사역을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성도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양선교교회에 맡겨주신 선교, 교육, 봉사 사명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주일예배에서 “생각이 기도보다 앞설 때”(사무엘상 27: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 목사는 다윗의 광야 생활이 만 8년 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블레셋의 땅, 가드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게 되면서 어떻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아무리 작은 판단이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은 다윗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다. 다윗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다. 다윗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였다. 이 다윗의 모습이 잔인한 것은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부족간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항복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도, 나발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진 것일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잔혹해진 것일까?”

“오랜 도망자 생활이 8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보다 생각이 많아졌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삼상 27:1) 이렇게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 보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된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다윗은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다.”

“다윗이 시글락에서는 주변을 약탈하며 살게 된다. 그 결과 꽤 많은 것을 얻었다. 광야에 살 때와 다르게 풍족해졌다. 가진 것이 풍족해지니 블레셋 땅에 더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블레셋 땅에 온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더이상 아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블레셋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블레셋 사람의 가치에 점차 물들게 되었다.”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는다. 반드시 후에 청구서가 날아온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곳에 와서 다윗의 사정이 훨씬 나아졌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이곳에서 다윗의 영이 죽어간다. 신학자들이 그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준다. 세상이 주는 만족 때문에 단 한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않았다. 시글락에서는 세상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의 영이 담히고, 기도의 샘이 막히게 된다. 영성이 망가지고 다윗 안에서 사울과 똑같은 악한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니 살인도, 약탈도 가능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판단이라도, 이 결정을 두고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택으로



내 예배와 기도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벗어나는 선택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김지훈 목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문화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소명을 받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했다. 이후 덴버의 일리프신학교를 거쳐 현재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영적 돌봄과 상담을 주제로 Ph.D. 과정에 있다. 높은 뜻정의교회 전도사와 부목사를 거쳐 킹스웨이교회 협동목사로 시무했다.

2016년 9월부터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온 그는 2017년 7월 동양선교교회 제 6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1970년 고 임동선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2대 이병희 목사, 3대 박광철 목사, 4대 강준민 목사, 5대 박형은 목사를 거치며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조셉 리 기자

만남의교회, 재정적 어려움 겪는 교회 돕는다

백리에 소재한 만남의교회(담임 목사 이정현)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고자 한다.

코로나19 때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부터 만남의교회 13579캠페인에 따라 3대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헌금을 이웃과 나누는 예수사랑 실천운동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활절 헌금을 나눔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거주 내 모범적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로, 교회당 \$1,0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6일(화)까지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만남의교회 홈페이지 www.churchmannam.com 배너를 통해 교회에 각 1,000달러씩 2만4,000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만남의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만남의교회

이 교회는 지난 2020년 총 24개

김민선 기자

단신

■ 루기를 배경으로 만든 한국 창작무용 뮤지컬 Chosen(뮤지컬)이 4/14(일) 6:30pm에 선한목자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티켓 문의: (909)591-6500 사무실(무료 배부).

■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크리스천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7회 기쁜우리교회 장학생을 4/15~5/31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남가주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남가주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 학생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새생명선교회(대표 김은형, 이사장 주성기)는 고 박희민 목사

의 소천 1주기를 기념하여, 5/20(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및 소형교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주제: 디아스포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 (고 박희민목사님 1주기 기념 세미나)

▷ 지원금액: 목회자 1명당 각 \$1,500

▷ 총선발인원: 50명

▷ 지원자격: 교인수 25명~70명 규모(현재 출석 교인)의 교회 담임목사로 세미나 참석자에 한함

▷ 신청방법: newlifemissionfdn.org에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

▷ 결과발표: 2024년 5월 10일(금) newlifemissionfdn.org 웹사이트와 개인 이메일 공지

제1회 300용사 부흥단 남가주 핫불 기도회

 정주갑 목사 대표총재 300용사부흥단 대표총재	 신요한 목사 300용사부흥단 사무총장	 오승준 목사 300용사부흥단 총무	 신영 선교사 300용사부흥단 의전위원장	 백지영 목사 300용사부흥단 남가주본부장	 김혜경 목사 300용사부흥단 서기	 이학재 목사 300용사부흥단 회계	 김경혜 목사 300용사부흥단 봉사위원장	 양승원 목사 300용사부흥단 평택지부장	 이경옥 목사 300용사부흥단 단원	 조남숙 목사 300용사부흥단 부산 예배팀 팀장
-------------------------------------	-----------------------------	---------------------------	------------------------------	-------------------------------	---------------------------	---------------------------	------------------------------	------------------------------	---------------------------	----------------------------------

5/1(수) 오후 6:30
지구촌 사랑의 교회 담임 이경신 목사(714-745-2348)
13041 # C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5/2(목) 오전 10:00 (310-440-7300)
출발 Santa Monica /Getty Center(게티 박물관)
1200 Getty Center Dr, Los Angeles CA 90049

5/3(금) 오후 7:30
백지영 목사 남가주본부장 (323-708-9191)
희망찬교회 4323 W. Pico Blvd LA, CA 90019

5/4(토) 오후 2:00
솔로몬 대학교(원) 졸업식 (323-708-9191, 213-381-7755)
Rev. Esther J. Baek Ph.D.
Email: SolomonUniversity@gmail.com
520 Lafayette Park Pl, Suit 209 LA, CA 90057

5/5(주일) 오전 11:00
LA광명교회예배 담임 김영석 목사(310-702-3223)
2975 Wilshire Blvd, # 401 LA, CA 90010

5/6(월) 오전 10:30
뱅크 기도원(Thank House of Prayer) 조은혜 목사(213-999-3943)
2426 8th St, LA, CA 90057

5/7(화) 오전 10:00 출발
예수 사랑 세계 선교회 조병국 목사
필렐사티 (Phelan)지부장(213-445-2488)
3675 Del Rosa Rd, Phelan, CA, 92371

300용사 부흥단 용사로 모십니다

가임문의

한국과 전세계의 영적지도를 바꾸기 위해 300용사 부흥단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신 겸손한 기도의 용사들을 모십니다.

대표총재 010-5788-4569
사무총장 010-2496-8291
뉴욕본부장 718-637-1470
남가주 본부장 323-708-9191

주 관 : 300용사 부흥단
주 최 : 남가주지부 **협 찬 : 지역 지부회**
연락처 : 남가주 본부장 백지영 목사(323.708.9191)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24년 봄맞이 야외예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6일(토) 봄맞이 야외예배 겸 425차 기도회를 플러튼에 위치한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서 가졌다. 이번 야외예배는 팬데믹 이후 처음 갖는 행사로 특히 이사들과 자문위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연합회는 “2년 전에 회원들과 이사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봄맞이 기차여행으로 San Juan Capistrano와 Oceanside Pier에 다녀왔는데 그 때의 추억이 좋아 한 번 더 갖기를 원했는데, 임원들과 의논한 결과 이번 4월 정기 기도회에 봄맞이 야외예배를 갖게 되었다. 여러 이사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민길 이사장의 환영사, 부이사장 한철수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신원규 목사가 하나님의 토브의 마음(창 1:24-31)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이원석 목사의 인도로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6일(토) 봄맞이 야외예배 및 제425차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독교일보

도, 특별히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OC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해외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2부 순서로는 OC교계 행사안내와 참석한 내외 귀빈을 윤우경 증

경회장이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설교자로 초청된 OC교협 직전이사장 신원규 목사 부부와 OC목사회 이원석 목사 부부를 비롯해 OC교협 총무 조진용 목사, 임원 제임스 한 목사,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 사무국장 이명철 목사, 타이거 양 회장 부부

등이 함께 했다.

야외예배 강사로 참석한 신원규 목사는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에 “선교사자녀 장학금”으로 2,000불을 기부했다.

그는 “선교사들은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과 물질을 바치는데, 그들의 자녀인 MK를 위한 준비

나 계획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OC전도회연합회가 MK를 위해 장학금을 준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고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매년 골프대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 째를 맞는다. 올해 골프대회는 10월 14일(월)에 Los Coyote Country Club에서 가질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6월 2일에 있을 연합성가합창제의 수익금과 7월 8일부터 진행되는 제9차 KWMC 세계한인선교대회에 참석한 MK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매월 정기 조찬기도회와 상반기, 하반기 주요 행사를 진행하며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앙회복과 올바른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OC인근지역의 평신도라면 교회나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OC연합회 기사 제공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찾아가는 무료 유방암 검사

직접 찾아가는
센터메디컬그룹 2024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

오렌지카운티
1500 W. 17th St. #100
플러튼, CA 92631

사우스베이
1500 W. 17th St. #100
플러튼, CA 92631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
(비회원도 가능)

서비스
50분 내외
초음파 포함
의사 상담

연락처
714-904-1701 (오전 9시~오후 5시)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시니어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메디컬그룹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여성들은 70세 이상이 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65세 전후로 유방암 검사를 받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된 사례가 많다. 센터메디컬그룹에서는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검사를 진행한다.

센터메디컬그룹은 검진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첨단 유방암 검사가 가능한 버스를 대절하여 가입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다.

이를 모바일 유방암 검사(Mobile Mammography)라고 부르며 20분이면 손쉽게 검사가 완료된다. 또한 여성 검진

자들을 위해 여성 테크니션이 검사한다.

하루 40명까지 예약 가능하며,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라면 누구든지 예약할 수 있다. 이날 참여한 가입 환자들에게는 센터메디컬그룹 고급 생활품이 든 구디백과 고급 연석약, 마켓 상품권이 제공된다.

유방암 검진 일정
OC지역: 5/15(수) 오전 9시-오후 4:40 동신교회(2505 Yorba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사우스베이 지역: 5/16(목) 오전 9시-오후 4:40 성화 장로교회(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신청 (714) 904-1701
문의: (714)786-3647

한미연합회 학생들, 모의 유엔 대회 8명 수상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USC가 주최한 모의 유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KAC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4월 6일과 7일 이틀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대학교가 주최한 'SCMUN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총 8개의 상을 수상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21명의 KAC MUN 학생들이 각각 자신이 관심 있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참가해 미리 배정된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국제사회현안을 논

고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인 부문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위원회에 참가한 '레이첼 최(Rachel Choi)' 학생이 최우수상,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에 참가한 '소피아 김(Sophia Kim)' 학생, 위기관리위원회(Crisis Committee)에 참가한 '매튜 세이(Matthew Hsieh)' 학생, '마이클 세이(Michael Hsieh)'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스테인 정(Stephen Jung)'학생이 장려상, '엘리 박(Elle Park)' 학생, '로

렌 박(Lauren Park)' 학생, '데이빗 한(David Han)'학생이 리서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모의유엔(MUN) 프로그램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폭넓게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 주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내외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 리더십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한미연합회는 모의유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참가 학생들에게 기회와 성장의 장을 제공해 왔다. 김민선 기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스프링 대세일 Spring Big Event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인랜드에서 다음세대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교회로”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는 2008년 3월 선랜드 ANC 온누리교회의 협력(Association) 교회로 시작됐다. 2021년부터는 선랜드 교회와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ANA(ALL Nations Association)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 독립교회가 되었고 지난해 3월 4대 담임으로 윤창률 목사가 부임한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윤목사는 다음세대와의 연결이 현재 한인교회와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창률 목사와의 일문일답.

▶ 인랜드 교회 목회 1년차를 맞고 있다. 1년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1년간 무언가를 정해서 강력히 밀어붙이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 선랜드 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해 왔는데 처음 맡은 담임목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1년을 지내왔다. 담임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리가 두렵기도 하고 참 부담이 되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바로 서야 한다는 마음 자세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 ANC 온누리교회라고 하면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좋은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인랜드 교회를 담임하기까지 과정이 어떠했나.

원래 선랜드 ANC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2004년부터 사역했고 2021년까지 17년간 섬겼다. 이후 잠깐의 휴식을 가지는 동안 인랜드 교회에 정빙 기회가 있어서 신청했고 2023년 3월부터 담임목회를 시작했다. ANC 교회들간에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형제교회로 지내는 올 네이션스 어소시에이션(ANA) 교회로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 전에는 인랜드 교회가 캠퍼스 교회의 위치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독립교회로 운영되고 있다.

▶ 1년 목회는 적응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성도들과는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1년을 목회 한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성도들과 영적으로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갈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임목회 시작 후에 1년정도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1년이 흘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 윤창률 목사. ©기독교일보

렀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성도들도 마음을 많이 열고 이해를 해주신 것 같다. 처음 1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그동안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목회 청사진을 공유한 것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교회가 10년동안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리더십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큰 욕심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의 좋은 모범을 세우고 그것을 다음세대에게 계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회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교회에 연세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더욱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바톤을 넘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역 1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매우 강하게 주시는 것을 느낀다. 시무장로님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집어 내고 모든 에너지를 다음세대 위해서 쏟는다는 자세를 갖자고 했다. 다른 이민교회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교회의 경우 다음세대를 꼭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시설이나 리더십을 세우는 일, 또 교육까지 많은 부분들을 손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 다양한 세대가 한달에 한번 이상 회의도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되는 꿈을 그려가자고 당회 때 이야기를 했고 다들 이해를 해주셨다.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그동안 강조한 부분이 있는가.

올해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살리라’다. 개인 경건생활에 많은 강조점을 뒀다. 큐티, 일대일 양육,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왔다. 할 수 있는 한 깊이 묵상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목회자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랜드 교회의 유진수 목사님이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20여 년 전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도 큐티와 일대일 양육을 많이 강조했었다. 모든 성도들은 큐티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전통을 살려서 지난해부터 큐티를 활성화 했고, 올해는 이 과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깊이 훈련하는 단계로 진행 중이다.

▶ 인랜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처음에 와서 했던 설교도 ‘행복한 교회’가 주제였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녹아 있었던 것 같다.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행복한 신앙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동체는 좋은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동안 행복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 또 한가지는 소그룹 모임인 ‘다락방’을 통해 더욱 깊은 성도들간의 교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배라고 생각한다. 먼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행복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가 나와서 파송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담임 목회하는 입장에서 늘 두렵고 떨린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부목사로 섬기는 시간은 많았지만 담임목사로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했는데 고령화 및 다음세대 신앙계승이라는 주제는 다른 많은 한인교회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많은 이민교회들의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더욱 실감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 및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고민들을 두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만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 또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 옛날 한국의 교회가 정이 많았던 것 같이 항상 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랑이 많고, 푸근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귀하다고 느꼈다.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사택이 멀어서 집에 못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매번 아들같이 챙겨주시고 마음을 써주셨다.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신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원 관리 등 모든 것을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신다.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베푸시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그런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지속하고 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목격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바란다. 한마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김대원 기자

아버지 밭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무료상담 (213)210-3651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Dlee@proverbs318law.com

VIP HEALTH & BEAUTY MED SPA

GRAND OPENING



VIP
HEALTH & BEAUTY MED SPA

가든그로브 지역, 당신을 위한 메디스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름다움을 지키세요**

그랜드오픈 맞이 파격 세일!
방문 시 명시된 가격에서 10% 추가 할인 적용



+EXTRA
10% OFF

그랜드오픈 맞이 10% 추가 파격 할인!
(명시된 가격에서 10% 할인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오픈 스페셜 할인

“다시 한번 젊어지는 내 피부를 느껴보세요”

리쥘란 피부 탄력 회복이 고민이라면 3 treatment -\$1,800- \$1,200	PRP 60cc draw 피부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3 treatment -\$2,400- \$1,800	VI 필 세포를 재생시키는 각질제거 1 treatment -\$500- \$350
보톡스 & 스킨보톡스 자연스러운 피부 탄력 증진 제오민 -\$10- \$8 알로겐 -\$12- \$10 나보타 -\$8- \$5	모피어스8 패키지 콜라겐 생성으로 젊어지는 피부 3 treatment -\$2,400- \$1,800 Vitamin C (3 after care treatment)	IV 테라피 피로 회복, 노화 방지, 간기능 개선 실핏줄 제거 모세혈관 확장증 개선 3 treatment -\$900- \$600

그랜드오픈 맞이 파격 세일!
방문 시 명시된 가격에서 10% 추가 할인 적용

여름맞이 스페셜 패키지

여름맞이 제모 패키지
숨털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로

Armpit	
1 tr	-\$50- \$40
5 tr	-\$250- \$190
7 tr	-\$350- \$250
Full Bikini	
1 tr	-\$100- \$90
5 tr	-\$500- \$425
7 tr	-\$700- \$560

“여름 준비는 실속 있는 패키지로!”

여름맞이 얼굴라인 패키지
쳐진 얼굴 리프팅&타이트닝 효과

-\$4,700- \$2,500	
Mini FX (5 treatment)	\$2,000
포마 (5 treatment)	\$1,500
얼굴 마사지 (10 session)	\$1,200

여름맞이 토닝 패키지
피부톤을 밝고 화사하게

-\$5,280- \$3,000	
루메카 (3 treatment)	\$1,500
포마 (9 treatment)	\$2,700
마사지 (9 treatment)	\$1,080

+EXTRA
10% OFF

그랜드오픈 맞이 10% 추가 파격 할인!
(명시된 가격에서 10% 할인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기미+색소+탄력을
한꺼번에 잡자!**

- ✓ 기존 레이저 토닝 치료에 효과가 없던 분들!
- ✓ 기미 치료를 받고 더 진해지신 분들!
- ✓ 기미 치료를 받아도 빨리 재발하는 분들!



그랜드오픈 특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랜드오픈 맞이 파격 세일!
방문 시 명시된 가격에서 10% 추가 할인 적용

지긋지긋한 피부고민은 이제 VIP에서 해결하세요



무료 상담 714-649-6586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C, Garden Grove, CA 92843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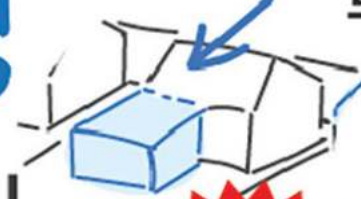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제8차 영적대각성연합세미나' 4월 10-13일 개최

이천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유명강사초청

■ 일시: 4월 10일(수) 저녁-13일(토) 제8차 영적대각성연합세미나 ■ 장소: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당오현수당관)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 문의: 010-5453-2768, 010-9670-5738

박요한 목사  ■ 약력 - 서울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 - 한기총, 한성총, 공동목회연합회 - 서울대학교목회학연구소장 - WEM of CA 선교부 이사장 - 대영일대교회 총회장 - 연안교회 총회장 - 그리스도신학교 총회장 - 기독교 한국선교 총연합회 - (한국)국제선교사모임 회장 -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이사장 - 미국 LA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  ■ 약력 - 미국 LA 남가주지역연방교회 회장 - 세계교회연합 공동회장 - 미국 LA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이사장 - 대영일대교회 총회장 - 대영일대교회 총회장 - 대영일대교회 총회장 - 대영일대교회 총회장 - 대영일대교회 총회장 - 대영일대교회 총회장	원팔연 목사  ■ 약력 - 전주 바울교회 원로 - 기독교성경총회(가성)총회장 - 서울신학대학교 겸임이사장 - CBS 기독교방송 겸임이사장 - 연세대학교 겸임이사장 - WEM7 법안 이사장 - WEM of CA 선교부 총회장 - 국제제수사관학교 이사장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윤상오 목사  ■ 약력 - 기감 필리핀세계중보교회담임 - 21세기부흥선교회연구원 총장 - 4차산업혁명선교회원 총장 - 세계선교선학연구소 소장 - 국제제수사관학교 이사장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조희철 목사  ■ 약력 - Lafn Mission 변증전도 대표 - '유대인 무신론의 비밀' 저자 - 가주 뉴욕 강요체 목회 - 미주 열린신학교 석사 - 미주미주리대학 겸직 석사 - 서울대학교 학사	진용식 목사  ■ 약력 - 천계정합총회 이단대책위원장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 - 이단상담국 교육원 원장	피중진 목사  ■ 약력 - 남서울중앙교회 - 홍익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관세대학교 총동맹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맹회 이사 - 미국 Faith시대원 목회학 석사	한창덕 목사  ■ 약력 - 천계정합총회 이단대책위원장 - 관세대학교 총동맹회 이단대책 이사 - 서울대학교 석사 - 한국기독교이단대책연구원장 - 바울말씀 연구소 소장

‘이천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대표 서사라 목사)가 4월 10일(수)부터 13일(토)까지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장호원수양관에서 국내외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제8차 영적대각성연합세미나’를 열고 있다.

세미나 강사로는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 박요한 목사, 한국교회연합 공동회장 및 LA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 서사라 목사, 전주 바울교회 원로 및 기성 증경총회장 원팔연 목사, 기감 필리핀세계중보교회 담임 윤상오 목사, Lafn Mission 변증전도 대표 조희철 목사, 전 예장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장 진용식 목사, 연세대 총동맹회 상임이사 및 남서울중앙교회 피중진 목사, 전 예장개혁 이단대책위원장 한창덕 목사(가나다 순) 등이 나선다.

한국교회연합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하루 3차례 진행된다. 이천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의 고문으로는 김진호 목사(감리교 감독회장 역임), 이용규 목사(기성 총회장 역임), 구문회 목사(대신 총회장 역임), 피중진 목사(합동 총회장 역임), 권경환 목사(오산리 기도원장 역임), 심평중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역임), 김흥중 목사(대한민국 새시대사람연합 총재), 서아론 목사(성경국제선교후원재단 이사장), 이정수 목사(한기총·기화성대표 역임), 권오준 목사(아가페 신학교수 역임), 김진석 목사(이천시기독교연합회장 역임)가

활동 중이다. 신학자문위원으로는 권호덕 교수, 서요한 교수, 조상열 교수, 서영근 교수, 강영철 교수, 최종환 교수가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010-5453-2768, 010-9670-5738
 장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575

제3회 페트라 대학교 졸업식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페트라 대학교(Petra University, 총장 김정호 목사)의 제3회 졸업식이 2024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에 LA 조이폴교회(86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에서 개최된다.

페트라 대학교는 정통 보수신학과 세계 선교신학을 목표로 2013년 개혁주의 신학의 수호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었으며, 학위 과목으로는 신학 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이 있으며, 모든 과정 유학비자(F-1)가 가능하고 수시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다.

문의: 213-210-3877, 213-909-3579
 웹사이트: www.petrauniversity.org

대한 예수교 장로회 미주합동 총회 서부노회 98회 정기노회



지난 4월 9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서부노회 98회 정기노회가 놀워에 있는 새영교회(정종섭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합동총회 서부노회

지난 4월 9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서부노회 98회 정기노회가 놀워에 있는 새영교회(정종섭 목사)에서 열렸다. 정종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임영호 목사(서부노회 노회장)가 사도행전 20장 17-25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고별설교’를 통해 목회자의 신앙고백을 권면하고, 이종희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에는 회무질차를 통해 신입노회장으로 선출된 정종섭 목사를 비롯한 임원을 새

롭게 선출하고, 지교회에서 올라온 장로 증원 청원서 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어서 폐회예배에서 정종섭 목사가 에레미야 52장 1절-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며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 노회원들에게 권면했다. 노회를 마친 후 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음식으로 교제를 나누고, 새로 노회에 가입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서부노회 기사 제공

“봄 꽃놀이 무료로 보내드려요!”



센터메디컬그룹에서 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일일관광을 기획했다. ©센터 메디컬

길었던 우기탓에 각양 각색의 야생화가 만개해 많은 시니어들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플라워 필드로 몰리고 있다.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는 올해 초부터 무료 일일관광을 기획해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꽃놀이 관광을 예약받았다. 이 무료 일일관광은 센터메디컬그룹이 삼호관광과 계약하여 센터메디컬 그룹에서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대주는 관광 혜택이다. 관광버스 대절과 가이드 고용, 간단한 아침 식사와 그리고 점심의 뷔페식사 대접까지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지난 4월 9일과 11일에는 랑캐스터 파피 플라워 필드를 방문했고, <스타트랙>을 비

롯해 200여 편이 넘는 영화, TV,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유명한 ‘Vasquez Rocks’를 둘러서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참여한 시니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메디컬그룹에서는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다가오는 4월 16일과 18일은 칼스배드(Carlsbad)로 꽃놀이를 떠나게 된다. 4월 16일 화요일은 LA에서 칼스배드로 출발하며 4월 18일 목요일은 오렌지카운티에서 칼스배드로 떠난다. 이 무료 꽃놀이 관광은 센터메디컬그룹 가입자만 가능하며 더 자세한 문의와 예약은 (714)904-1701번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inex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습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말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LA 323.733.8814 OC 714.522.8818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김밥,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3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동정 피로’에 쓰러지는 목회자들 해결 방안은?



©unsplash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가 쓴 ‘목회자들이 동정 피로를 느끼는 방식과 극복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게재했다. 샘 레이너 목사는 미국 기독교 리소스 웹사이트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 회장이다.

레이너 목사는 “누군가가 짧은 시간에 여러 결정을 내린 뒤, 다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결정 피로(decision fatigue)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동정 피로(compassion fatigue)가 더 만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정 피로는 정서적,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경청하고, 돕는 것이 누적된 결과로 생긴 과도한 피로이다. 목회자들은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영적 대응자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문제가 더 만연하다”며 “그들은 심각하고 골치 아픈 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로 분리되고 동정심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 죄책감이 표면화되며 악순환이 생긴다”라며 원인들을 제시했다.

메시아 콤플렉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목회자들은 여전히 노력하고, 교회에 그 노력을 환원한다. 물론 어떤 목회자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동정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고, 자신 없이는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아 콤플렉스는 곧 탈진으로 이어진다.

고립: 혼자 짊어지는 짐은 더욱 무거워진다. 경청하는 친구가 당신이 좌절을 표현할 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귀는 종종 입보다 더 강한 치유 능력을 가진다. 고통을 겪는 목회자들은 말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고립되어 섬길 때 그들은 교인들의 말을 듣지만, 정작 자신이 말할 곳이 없을 때 긴장이 쌓인다.

여유 없음: 일정은 상담, 결혼식, 회의 등 시간을 요청하는 요구로 빠르게 채워진다. 각각은 교인들에게서 온 요청이라 중요하다. 그런 다음, 어떤 때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늦게까지 머물게 된다. 어떤 청소년은 가족을 한다. 당

신은 그 아이를 찾으려 도움을 준다. 한 배우자는 간통을 고백한다. 토요일에 2시간 동안 전화를 받게 된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 끝에 당신은 지치게 된다. 힘든 한 주처럼 들리는가? 아니, 그런 일은 매주 반복된다.

문지기 효과: 목회자들은 대개 교회에서 정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정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문지기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의 문제와 불만의 저장소가 된다는 점이다. 장례 안내를 언급하지 않거나 잊어버릴 경우,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하는 동시에 당신이 도움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진을 일으키는 이상한 상황이다.

공감 능력이 강한 목회자일수록 동정 피로에 더 취약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 타인의 트라우마에 더 민감한 목회자는 있어도, 면역을 되는 목회자는 없다.

목회자들은 동정 피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동정심을 위한 전략을 세우라. 이 제안이 이상하거나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동정심은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동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더 많은 공감적인 관심(다른 사람의 행복)을 갖고, 더 적은 감정적인 공감(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면화하는)을 갖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할 때 정서적 공감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공감하라.

경계선을 정하라.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 내게는 그런 날이 토요일이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시간을 내달라는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라. 경계선을 정하지 않으면 경계가 없어진다.

휴가를 매년 재충전의 시간으로 기대하지 마라. 매주 안식일의 리듬은 휴가가 아닌 재충전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의 영혼은 배터리처럼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재충전해야 한다. 배터리에 더 많은 전력을 넣고 1년 동안 지속될 길 기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휴가 재충전은 1년 내내 지속되지 않는다.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고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라. 긴 하루를 보낸 뒤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저 소셜 미디어를 뒤적거리고, 유튜브라는 토끼굴을 따라 여행하거나, 새로운 시리즈를 몰아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밖에서 운동하고 시간을 보내라.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야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써라.

현실적인 업무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위임하라. 이 연습은 몇 년 전, 내 아버지가 플로리다의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서 한 실험이다.

나는 교회에 있는 12명의 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몇 가지 교회의 책임을 나열하고, 매주 각 영역에서 최소 몇 시간이 나가야 하는지 물었다. 20개의 영역을 나열했고, 공백에 다른 책임들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지 결과를 집계할 때 충격을 받았다는 것만 기억한다. 집사들의 최소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매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 했다.

- 봉사 및 전도: 10시간
- 상담 : 10시간
- 병원 및 가정방문 : 15시간
- 행정기능: 18시간
- 지역사회 참여: 5시간
- 교단 참여: 5시간
- 교회 모임: 5시간
- 예배 및 설교: 4시간
- 기타 : 10시간
- 총: 주당 114시간

이 간단한 연습은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현실을 보여준다. 당신은 교회의 최소한의 기대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합리적인 주간 업무량을 설정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정비하면서 책임을 위임하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동정 피로가 시작된다.

당신의 피로의 시기를 예상해야 한다. 모든 직업이 그러하다. 하지만 당신은 목회에서 동정 피로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개선 안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측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이주자라는 주장을 유지하

고 있고, 강제 송환시 고문이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문방지협약 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해석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터너 특사는 그럼에도 “중국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최근 대남 강경노선은 북한 내부 상황 통제를 위한 절박한 시도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터너 특사는 “남한을 향한 수사(발언)의 변화는 러시아 밀착, 무기프로그램 등 능력에 따른 전략적 변화라기보다는 내부 정보 통제 시도”라고 해석했다.

이나래 기자

사설

‘동성애 이슈’로 침몰하는 서구교회

전 세계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서구교회의 심각한 상황은 한국교회에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미국 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미국연합감리교회(UMC)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끝에 분열했다. 영국 성공회는 최근 총회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기도를 허용하기로 의결했으나 40%나 반대해 향후 내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UMC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허용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은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기류가 교단에 만연하면서 지난 4년간 7,600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글로벌감리교회(GMC)를 조직하는 등 교단 분열의 직격탄을 맞았다.

UMC의 동성애 갈등은 지난 1972년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놓고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충돌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후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단 내에서도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논란 속에서 열린 2018년 총회에선 가까스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됐다. 하지만 교단 내에 밀려든 친 동성애 물결로 보수·진보 진영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재산을 포기해야 함에도 동성애를 용인할 수 없어 교단을 떠나는 건 순수한 신앙적 용단이 아니라는 설명이 안 된다.

영국 교회의 사정도 이에 못지않다. 영국 국교인 성공회는 지난 2월 9일 개최된 시노드(총회)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기도를 허용했다. 동성 커플이 결혼식 뒤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주교, 성직자, 평신도 대표 441명 중 56%인 250명이 찬성해 통과됐으나 반대가 181명(41.0%)이나 나오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결 과정에서 18차례나 투표가 이어질 정도로 극렬하게 대립했다.

현재 영국 성공회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동성혼을 올린 동성 커플에게 사제가 축복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율 배반’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성공회의 이런 기류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 축복식을 허용한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판박이로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영국 성공회가 이처럼 동성애 이슈에 묻히게 된 배경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을 꼽으라면 지난 2010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평등법’을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동성애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영국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교회마저 성경의 불문율을 깨는 변화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기독교의 쇠퇴를 몰고 왔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영국 인구센서스 결과 영국의 크리스천 비율은 46.2%로 떨어졌다. 한때 70~80%에 달했던 크리스천 비율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면서 유럽 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불리던 영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국교인 성공회가 동성애에 받아들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영국 성공회의 공통점은 교회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엄연히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동성애자를 안수하거나 축복을 허용하는 건 논리적으로나 정서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동성애자를 인권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죄와 죄인에 대한 모호한 구분이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막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논리의 허점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한다는 데 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 고한 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개념의 절대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동성애를 하는 건 오직 인간뿐이란 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죄인을 축복하고 허용한다는 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동성애는 개신교회 내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교회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다. 1916년에 호주 시드니에 처음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생겨난 후 1977년에 영국 성공회가, 2007년에 미국 장로교(PCUSA)가 동성애자 성직자를 받아들이면서 이젠 그 파고가 한국장로교와 감리교 교단에까지 밀려드는 상황에 직면했다.

교회는 시대의 양심이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이런 전제에서 미국과 영국 교회의 사례는 동성애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건강한 사회를 얼마나 쉽게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마음 놓아도 될 때인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편승한 인권에 눈감아주고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순간 저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한입에 집어삼키려 들 것이다.

송재호 칼럼

관점(觀點)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바라 보는 것’은 의지적 행위. 하나님의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 믿음의 안경을 벗는 순간, 세상은 뒤틀리게 된다

세상(世上)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관점(觀點)으로 보고 있는가? 에 중요함을 배울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인간(人間)의 관점은 생각(生角)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計劃)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引導)하심을 불수 없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걱정(憂患)과 근심(根尋)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관점(觀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는가? 이다. 그렇다면 “관점(觀點)”이란 단어(單語)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重要)한 단어는 “무엇을 바라본다.”는 단어(單語)이다.

특히 “바라본다.”는 “보여진다”와는 사뭇 다르게 인간의 자유의지(自由意志)가 강하게 표출(表出)되는 단어이다. 즉 “바라본다”란 “이렇게 바라보고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상태(狀態)에 놓여있는 순간(瞬間)”을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지(依支)와 생각(生角)의 틀 안에서 우리의 결정(決定)과 결론(結論)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瞬間)이라는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

만 또 어떻게 보면 안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두가지의 갈등(葛藤)이 함께 하는 순간(瞬間)이 바로 우리의 관점(觀點)일 것이다.

그럼 우리의 관점(觀點)이 긍정적(肯定的)으로 그리고 부정적(否定的)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기에서도 욕은 자신 주위에 있던 친구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다른 관점(觀點)을 보여준다. 그래서 욕은 욕기에서 고통(苦痛)의 시간(時間)에 절규(絶叫)하듯 욕기 14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욕기 14:14)

욕의 고백(告白)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바로 “관점(觀點)”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을 상대로 한 영혼 대 영혼의 끝없는 싸움에서 필요한 관점 바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로 우리는 “관점(觀點)”이란 단지 시각(視覺)의 문제(問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벗어 버리게 되는 순간, 세상(世波)은 뒤틀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誘惑) 앞에 세상의 빛이 굴절(屈折)되어 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중 “관점”의 중요성(重要性)을 배워본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근심이 앞서고 있지만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觀點)으로 4월을 시작해 보자. 소망의 돛대를 활짝 올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순풍(順風)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동행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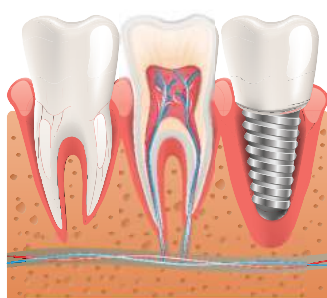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리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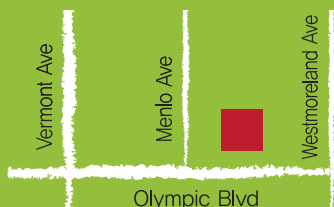
에스더 리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우 호텔 건너편)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배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놀웁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이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성경공부 낮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00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909)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fice@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오전 11: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2부 저녁 언제든지(오침시)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434-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434-2292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피선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침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지(오침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한어)
파워워십 2번매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 4번매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213)753-6169 tgdsgc@gmail.com

김인수 칼럼

분신(焚身)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6)
분신자살(焚身自殺)이란 자기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4년 3월 초 민주주의 분산이며 기독교를 국교와 같이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미국에서 현역 군인이 분신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더 이상 제노사이드(genocide: 대량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을 감행했습니다. 공군 현역 병사가 명

분 없는 가자지구 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반대하면서 분신자살을 한 것입니다.
25세인 이 병사는 자기가 분신하는 전 과정을 자신의 모바일 폰으로 생중계 하면서 자신은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에 공범이 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2.2%인 650만에 불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과 주요 매스컴 등 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은 먼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여 1,200여 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일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현재 무자비한 폭격을 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 박멸하기까지 결코 작전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죄 없는 어린이 이들과 부녀자들, 노인들 등 민간인들이 현재 보고된 바로는 2만여 명이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고 있는 가옥과 아파트,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병원과 모스크(무슬림들의 예배당)까지 무자비하게 파괴함으로 전체 아랍권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도 아랍 사람들 즉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거의 매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분신자살은 이렇게 잔인하게 포격을 퍼붓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 항거입니다. 그러나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든 남을 죽이든 그것은 살인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남을 죽이는 살인과 자살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죽지 않을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노동을 하던 전태일 씨가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

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부르짖으며 쓰러졌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항거 방법이 분신이었습니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자살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가 선생인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배반자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성전 헌금함에 던진 후, 나가서 자기의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생명도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납시다. 살롬.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할렐루야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에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그와 연결해서 헨델(G. F. Handel, 1685-1759)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화였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영국 성공회 주교 겸 신학자 톰 라이트(Nicolas Thomas Wright, 1948-)가 쓴 “The resurrection of the Sun of God”에 보면 “1세기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일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야만 했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이어, 3세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카타콤의 기독교인들도 명확하게 그 사실을 바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그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매년 “He is risen 주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대반전 사건으로, 현재의 삶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와 연결 지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계시록을 쓴 요한 저자는 죽임당하신 어린양을 향해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그리고 능력을 세계 무궁토록 드리기예 합당하신 분(계5:12-13)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와 연합하고 그가 세계 무궁토록 왕 노릇하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계11:15, 19:16) 라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헨델은 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2부, “수난과 속죄”의 마지막, 그리고 3부, 부활과 영생”의 마지막 곡에 가사를 만들고 오라토리오 “메시아” 대단원의 종결을 하였습니다. 헨델은 이 오라토리오를 만들 당시 그의 생애 가운데 정신적, 재정적인 최악의 빈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합창을 작곡하는 탄생 신비는 놀라웠습니다.
헨델은 당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를 돕던 하인의 증언에 의하면 식사를 가져다주면 먹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고 종종 그가 작곡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할렐루야”를 완성했을 때 그는 한 하인에게 “내 눈앞에 온 천국이 보였고,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합창의 리듬 형태를 보면 가사 “할렐루야”를 마치 반복 후렴구나 반주처럼 사용하면서 이어지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의 선율과 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 전능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음표를 자유자재로 다뤘던 대가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대 작곡가들 베토

벤은 그의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Christ on the Mount of Olives)”를 작곡하던 중에 메시아를 인용하며 헨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의 무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헨델의 천재성 앞에서 겸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 헨델이 그 신념 속에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을 음악으로 표현한것을 통해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쟁, 테러, 경제적 빈곤이 사회를 더욱더 어렵게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갈구하고 소망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매년 고백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은 일 년에 한 번 부활절 시즌을 맞아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 년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예배 중심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기억되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을 사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He is risen!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Advertisement for Samsung Shipping (삼성통운). The ad features the company logo and a background illustration of a city skyline with the Statue of Liberty and Hollywood signs. The main slogan is "Samsung is different."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The ad lists various services including international shipping, local moving, and car transport.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1-877-580-2424 and (310) 538-3333, and website www.samsungmoving.com. The ad also includes a list of services for international, local, and car transport, and a list of countries served.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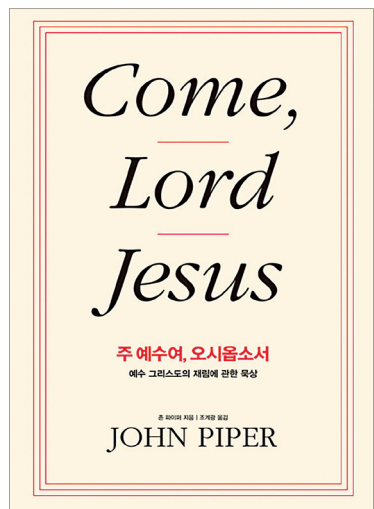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존 파이퍼의 재림 묵상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나요?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만연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두 번째로 쓴 편지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벧후 3:9)”고 말했다. 당시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 중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일부가 아닌 대다수 성도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매우 더디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고, 만물이 영원토록 그대로 있을 것처럼 눈앞에 있는 하늘과 땅만 바라보며 온통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존 파이퍼는 다시 한 번 교회가 말과 삶으로 외쳐야 할 고백,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같은 제목의 책을 썼다. 원서 제목은 《Come, Lord Jesus》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의 영어번역본과 같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인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단지 이 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 곧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애정에 목표를 둔다(9쪽)”. 즉 이 책을 통해 독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굳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묵상’

이다. 하지만 22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재림에 관한 여러 묵상들을 임의로 섞어 놓은 책이 아니다. 재림을 주제로 기승전결을 갖춰 재림을 사모해야 할 이유, 재림 시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한다.

종말론은 크게 언약주의와 세대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 오심에 관한 견해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결론적으로 존 파이퍼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차례의 재림만을 인정한다.

2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시기’에서는 재림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과 바울의 설명이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 세대 안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오시기 전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같은 신학적 견해를 가졌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이 책처럼 중간에 위치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재림 시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는 신약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속히”, “곧” 오시겠다는 약속이 어째서(수천 년이 지나도록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진실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훌륭하게 설명했다. 또한 주님이 오시면 뭔가 좋은 느낌이 들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



존 파이퍼 목사, ©Cross for the Nations 2020

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놀라워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흠 없는 상태로 주를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진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행한 대로 상을 얻고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에 열광할 것을 요청한다. 저자를 통해 우리는 주 오심을 의무적 혹은 형식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바랍처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애정으로 사모하며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성경 본문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실 애정을 기대하게 된다). 말세의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현세에 집착하게 만든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온갖 더러운 일, 정욕을 따르는 일에 몰두한다. 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도 모양만 남

고 능력은 잃는다(딤후 3장). ‘세상 말세’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팎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시선이 더욱 현세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지금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 영혼에 주 오심을 사모하게 만드는 영적 양식이 채워질 때, 비로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된 당신이 그 성향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 주가 오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자. 반대로 그런 기대감 없이 잠자는 것처럼, 슬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에게 주님은 다른 의미로 갑작스럽게 찾아오실 것이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겠는가? 이 책을 읽고 그 합당한 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존 파이퍼 | 조계광 역 | 개혁된실천사 | 344쪽 | 20,000원

존 파이퍼는 이 책을 통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우리를 재림 신앙의 회복으로 이끈다.

그가 밝히는 재림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에게 가져다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재림 이후 신자들이 누리게 될 인격적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재림 사건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한다.

4월, 작가들의 말말말

■ 최우성 -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

진화는 생명체의 부품들이 조립되는 과정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세포가 저절로 형성되려면, 먼저 정상적인 부품들이 모두 만들어져야 하고, 그다음 각 부품들이 3차원의 공간에서 완전한 시스템으로 저절로 조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수를 셀 수도 없는 많은 부품이 스스로 제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 이 과정은 현대의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복잡한 부품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저절로 조립되어 질서 있는 생명체의 시스템을 이루었다고 믿는 진화론의 주장은 과학 법칙을 무시하는 반과학적 상상이다. 세포는 자연적 화학 반응과 물리적인 과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반대로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는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과학적인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생명체 창조 과정은 반과학적인 진화론의 주장보다 훨씬 논리적인 설명이다. 모든 세포를 포함하여 생명체는 전능하신 창조자의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이후 오아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7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he delivers them.

2024. 4. 12 H PSALMS 34:7

Multi-Function Printers

KONICA MINOLTA bizhub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파묘>는 오컬트? 반일?

<파묘>: 무속과 풍수가 한민족 역사에 끼친 해악



무속과 풍수지리를 추종하는 이들 사이의 주술 대결을 소재로 삼는 영화, <파묘>.

샤머니즘, 풍수지리, 반일감정 적절히 섞은, 강력한 흥행공식 과학기술로 부강해진 한국인들, 여전히 주술적 세계관 머물러 한일 양국 미개함 다투는 꼴, 기독교 신앙만이 불행 해소 가능

◆종교와 미신: 오늘날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속과 풍수

영화 <파묘>는 한국인들의 전통사상인 못자리 및 풍수지리와 관련된 작품으로, 2018년 개봉된 영화 <명당>과 비슷한 모티브를 공유하는 작품이다. 거대한 부를 축적한 가문의 장손 집안이 신병을 앓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튿날 무당과 풍수사, 그리고 장의사가 힘을 합쳐 한 기괴한 무덤과 관련된 심령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작품의 주된 줄거리.

작품의 주요 소재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전통종교 사이 벌어지는 대결이다. 영화 <파묘> 줄거리는 한국식 무속 샤머니즘과 일본 신도의 애니미즘(정령신앙)이 서로 대결을 벌이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해 자행된 제국주의 침략 역사와 고위 친일파들에 의해 자행된 매국(賣國)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이처럼 영화 <파묘>가 한국의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무속 관련 서사에 흥미를 더하는 점은 2016년 개봉된 영화 <곡성>과 비슷한 점이 있다. 즉 <파묘>는 그동안 한국 심령스릴러 장르의 가장 강력한 흥행공식인 무속 샤머니즘, 풍수지리, 그리고 반일감정을 적절히 섞어놓은 작품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서사 및 연출 전략 덕분에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다.

영화 <파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서사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양자물리학과 컴퓨터공학 기술이 인류의 문명 발전을 주도하는 21세기 현재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는 무속과

풍수지리 사상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둘째, 종교적 주술이 개인을 넘어 기업 운영과 국가 행정에 깊게 관여할 만큼 동아시아 각국의 문명발전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불가피한 불행이다. 개화기에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근대화가 이뤄지기 전, 한반도에는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에게 체계적 관찰과 실증적 실험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속의 미신들과 도교, 불교, 유교 형이상학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탓에 끝내 음양오행, 풍수지리, 사주, 관상 등 주술적 속성이 강한 세계관 및 인간 이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에서 전근대적인 주술적 세계관이 다소나마 힘을 잃게 된 것은 첫째로 구한말 선교사들이 여러 기독교 학교를 세워 민중의 계몽에 힘쓴 덕분이고, 둘째로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문화쇄신을 추진한 덕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도 무속 샤머니즘과 풍수지리설의 영향력 약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다. 새마을 운동이 미신 타파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역 향촌의 농경 및 생활 방식 전체를 근대화하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당과 한국 전통 주술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과학과 미신: 과학을 대신했던 무속과 풍수, 민족의 해악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의 전통적 종교 주술과 세계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근대화되지 못한 영역에 자리를 잡고, 끈질기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꽤 기괴한 현상이 발생한다.

첨단 IT 기술에 국운을 걸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속과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이 삶의 방향이나 사업, 정치동향을 좌우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일례로 첨단산업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을 일구낸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저명한 풍수사들에게 의뢰해 선친의 묘를 이장하고, 자신의 못자리도 신중하게 선택했다.

사실 전근대 한국, 즉 조선과 고려 시대를 포함한 중세 및 고대 한반도에서는 무속,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설, 주역, 관상 등이 인간과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자연과학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 종교 요소나 주술에 실증적 근거가 아예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무속은 신성한 자들과 신병 발병 현상 등을 통해 영혼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줬고, 풍수지리는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만한 환경 조건들을 따지다 그 노하우가 체계화돼 하나의 형이상학적 원리로 발전된 것이다. 음양오행설은 자연 생태 속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것을 체계화했고, 주역과 관상 이론은 인간 삶의 정황과 외모, 그리고 각 삶의 궤적 등을 관찰하면서 공식처럼 정리된 것이다.

그렇지만 전근대 한반도 사람들은 이렇게 샤머니즘과 도교를 바탕 삼아 형이상학적으로 정리된 이론들을 따르다가 문명 발전에서 서구에 크게 뒤처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민생 개선 또한 정체돼 사람들이 늘 가난과 질병, 그리고 무지로 고통받았다. 이는 한국 전통종교가 전한 가르침과 세계관이 인간의 현실적 삶에 맞지 않는 오류 투성이의 불안정한 세계 이해 방식이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묘>에 등장한 조상 귀신이나 일본의 오니 같은 것들의 경우, 그와 관련된 체험과 현상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본모습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서도 귀신이 인간에게 신체적·정신적·영적으로 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것을 극복하려면 인간의 주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한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양쪽 가르침의 실효성과 보편성 여부를 따져 보면 무속은 영적 세계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반면, 성서의 가르침은 전 세계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은혜가 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럼에도 영화 <파묘>는 한국의 전근대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을 집대성한 무속과 풍수를 삶의 평안과 정의를 보장하는 데 유익한 지혜처럼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한민족 중심주의 혹은 한민족 우월주의가 반영돼 있다. 이는 '신토 애니미즘을 추종하는 일제 음양사(陰陽師)와의 주술 대결'이라는 영화 소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영화 <파묘>는 민족적 우월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민족의 문명 발전을 크게 저해한 전통 종교요소와 주술을 마치 우리 민족만의 고유하고 우월한 지혜의 체계로 포장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영화는 한국 관객들에게 민족의식과 반일감정을 부추겨 감정적 만족을 제공하는 대신, 우리 민족에게 오랜 세월 해악을 끼친 무속과 풍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가로막는다.

<파묘>에 묘사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람들이 풍수에 집착하는 작태(특히 중요한 지맥이 있는 곳에 꽃힌 쇠말뚝을 두고 싸우는 작태)는 마치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편



무속과 풍수지리에 대한 삶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기독교 선교를 적극 지원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

이 더 미신에 집착하는지, 어느 편이 더 계몽되지 못했는지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한일 양국의 종교전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미개한지를 다투는 이 영화 서사에 관객들이 호응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간에 대해, 자연에 대해, 그리고 영혼에 대해 우리 민족 고유의 편협하고 부정확한 인식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서적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만이 이런 불행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계속>

이용태 내과

한인사회의 봉사자로서 터를 닦아온
Dr. 이용태의 외길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종합검사
전문**

**하지정맥류
실팩졸 치료전문**

**MEDICARE
PPO**
각종 일반 보험으로
치료합니다

한국종합의료원
YELLOW CROSS MEDICAL CLINIC, INC.
Tel. (323)731-0681 903 Crenshaw Blvd. #302., Los Angeles, CA 90019 leeyongtae@yahoo.com

**미국 위장내과 간 전문의
미국 내과 전문의**
원장 이 용 태 박사
Yong T. Lee M.D.

CCNP, 무료 대학 투어, 튜터링, 자원봉사 기회 제공

“그들이 아는 영역 밖으로 나가 새로운 세계 발견하길”

LA에 오래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의 사각지대와 같은 LA한인타운에 중고등학생들의 학업과 리더십을 멘토링 해 줄 가족 지원 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3월 23일 CCNP(Central City Neighborhood Partners)는 한인타운 가정 자원센터(FSC)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2000년도에 빈곤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CCNP는 최근 LA시의 가정자원센터가 지원이 필요한 곳 20곳을 선정하면서 코리아타운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지난 주 기독교일보에서는 한인타운 CCNP의 로라 자파타(Laura Zapata) 디렉터와 조 칼랜드(Joe Carland) 재정 코치를 만나 CCNP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았다.

자파타 디렉터는, 특별히 이 지점을 ‘대학 코너(College Corner)’로 특화했다고 말했다.

득을 늘려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 안정이다. 우리는 가족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노숙자 예방 활동을 한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학업 목표 달성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대학 코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의 초점은 대학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대학진학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주려한다. 또한, 개인 및 그룹 튜터링을 제공한다. 튜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서, 학생들이 숙제나 프로젝트를 우리 지점으로 가져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생 코치로 일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학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며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준다. 대학 코너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대학에



CCNP 한인타운 센터의 조 칼랜드(Joe Carland) 재정 코치(왼쪽)와 로라 자파타(Laura Zapata) 디렉터(오른쪽) ©기독교일보

이루어 지는지를 알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배우고, 전문가들과도 교류 경험도 쌓을 수 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파라로스니노스(Para Los Ninos), UCLA Youth Source 등의 Youth Source 단체들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인턴십을 지원한 학생들은, 우리와 함께 사무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LA 카운티 내부와 외부 대학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대학 코너 학생들과 UCLA, LACC, LA Trade Tech, 이번 학기에는 UC San Diego와 San Diego State University를 다녀왔다.”

“대학 투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한번도 가보지 못한 채 대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직접 대학에 가보고, 대학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역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도록 해주고 싶다.”

“저는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웨스트레이크(Westlake)에서 자랐고, LA 카운티 이외의 대학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UC Berkeley, UC Santa Barbara를 보고, ‘세상이 내가 익숙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학 투어를 하는 이유이다. 5월 말에 UC Santa Barbara에서 열릴 마지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컬리지 투어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6학년~12학년)을 모집하고 있다.”

“학부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준비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대학을 비롯해 고등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부모와 대화하고 자녀의 학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CCNP의 ‘LA City and You’는 시민 참여와 지역 사회 참여를 목표로 만들어진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참가자들은 지역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의 책임감을 키우게 된다. 예를 들면, 길 거리에 버려진 가구, 매트리스 사진을 찍어 MyLA311 앱에 올리면, LA시에서 수거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CCNP에서는 부모 동의 하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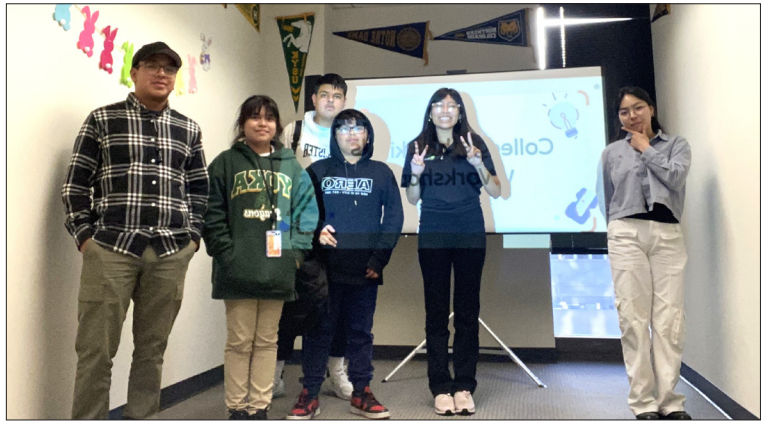
학년부터 청소년 자원 봉사자를 받으며, CCNP 청소년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6시까지 모임을 갖는다.”

CCNP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우리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학 코너이지만, 이 외에도 온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가족이 재정적으로 성장해 주거가 안정되고 학생의 학업을 돕는 것이다.”

인터뷰에 함께 한 CCNP의 재정 코치인 Joe Carland 목사는 이 프로그램을 한인 가정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입시, FAFSA 신청 등에서 무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부모님들이 유스 그룹에 대한 인포는 많이 알지 못한다. 부모님들이 바쁘시다보니 컬리지 투어는 전혀 생각들을 못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 이런 프로그램을 LA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힘든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학원처럼 숙제를 도와주고 프로젝트도 도와드립니다. 자녀들의 자원봉사 자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FAFSA 신청이 요즘 매우 어려워졌다. 그것도 도와주고, 대학교 지원하는 방법, 대학 지원 에세이 작성도 도와주고 있다. 요즘 대학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이다. 에세이와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본다. 반면에 SAT는 중요도가 낮아졌다. 저희는 내신 성적, 에세이와 리더십 부분을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학교와 아이들의 생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다.”

주디한 기자 웹사이트: <https://laccnp.org/>
문의: 213-482-8618, 213-518-5284
한인타운 FSC: 3731 Whilshire Blvd, Suite 460, LA, CA 90010
Westlake FSC: 501 S. Bixel St, LA, CA 90017



CCNP가 지난 3월 23일 윌셔와 옥스퍼드 거리에 코리아타운 센터를 열었다. CCNP 한인타운 지점은 대학코너를 집중 서비스로 제공한다.

“저희는 LA 거주자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이 접수 과정을 통해 등록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편적인 서비스에는, 혜택 심사, 신청지원(CalFresh, CalWorks, Medical), 유틸리티 할인(LIHEAP/LHWAP), 대중교통 쿠폰, 소득세 작성 보조(VITA) 등이 있다.”

CCNP의 세가지 목표: 가족 소득 증가, 주거 안정, 학생들의 학업 목표 달성 “우리의 목표는 첫째, 가족의 소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원 봉사와 인턴십 기회

“많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 자원 봉사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원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에는 서류 정리, 파일 정리, 문서, 과제 작업을 돕거나 디자인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무실에서 업무가 어떻게

龍光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갈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2024 부활절 캠페인



<고난, 치유와 희망>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140편 12절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재난, 갈등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치유와 희망의 소식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KAFHI)

Pay to the Order of KAFHI (Memo 부활절 캠페인)
주소 |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문의 | shchung@fh.org (703) 473-4696

